



미얀마 양계시설 자동화 첫걸음

- 보일공업(주), 산란계케이지 등 국내기술 무상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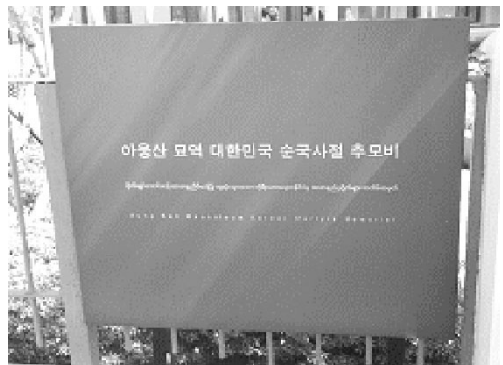
지난 10월 13일 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동방의 정원으로 알려진 불교국인 미얀마를 다녀왔다.

우선 미얀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의 3.5배이며 인구는 5,500만 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로 세계 150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는 예전의 버마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의 전두환 대통령일행이 버마를 방문해서 한국의 현충원과 같은 미얀마국가유공자들이 묻혀있는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공식일정중에 북한에서 테러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인사 20여명이 사상을 당한 곳으로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정부에서 바로 그 자리에 순국기념비를 만들어 미얀마를 찾는 우리관광객은 물론 미얀마인들에게 북한의 만행과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60년대말 70년대초 정도의 소득수준이며 광대하고 비옥한 농지와 풍부한 강수량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선점하려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한국, 영국 등에서 무상 경제원조 등을 통해 자연



김재홍
본회 경영정책국 부장



▲ 아웅산 묘역 대한민국 순국사절 추모비

스럽게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진입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 국토면적은 약 63만 km², 인구 약 5,700만명으로 동남아에서 보기 드문 대국이다.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은 물론이고, 루비, 사파이어, 안티모니와 같은 보석과 희귀 광물의 매장량도 세계적이며 산림과 수산자원도 풍부하다. 농업 자원도 풍부해 개발의 여지가 많다.

이번 방문은 민간차원에서 미얀마정부에 축산기자재 전문업체인 보일공업(주)이 산란계케이지를 미얀마정부에 무상제공함으로써 국내 양계의 선진기술을 전파하고 한국의 국익향상과 미얀마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일공업(주)과 대한양계협회가 협력으로 미얀마 농업부와 협약식 체결로 첫발을 내딛었으며 미얀마 양계산업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시범농장 사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미얀마의 양계농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시범농장사업에 보일공업(주)은 산란계 계사와 보일공업(주)만의 현대화된 최신식 산란계케이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처럼 의미 있는 협약식을 준비하는데 수고하신 前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을 역임하고 충남대 前 교수인 장동일 교수께서 수고

를 많이 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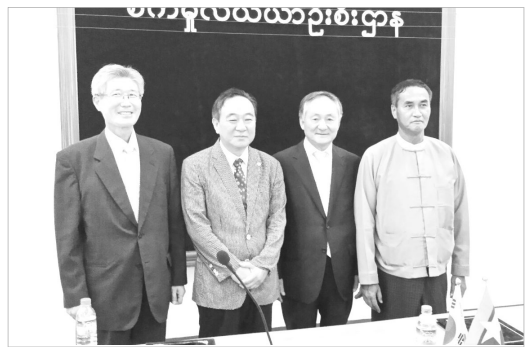
미얀마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별히 농업분야는 미얀마에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성장이 미얀마 경제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일공업(주)과 대한양계협회는 미얀마 농업부와 함께 미얀마의 양계산업 현대화에 많은 대해 토의해왔다. 지난 7월에는 대한양계협회 오세를 회장과 미얀마를 방문해 민간차원에서 미얀마 농업부와 많은 논의 끝에 한국의 보일공업(주)이라는 산란계 케이지 전문회사와 농업부 양 당사자가 미얀마의 양계농장에 기계화 및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미얀마의 농업기계화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범 양계(산란계)농장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일공업(주)은 산란계 5,000수를 사육할 수 있는 현대화된 양계케이지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키로 하였고 이번 10월 방문에서 본격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는 보일공업(주) 김현석 사장과 대한양계협회 이상호 부회장이 참석하여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지난 7월 대한양계협회 오세를 회장과 보일공업



▲ 미얀마 농업부와 국내 케이지 업체인 보일공업(주)의 MOU 체결





(주)의 김현석 사장은 미얀마 농업부 농기계국장을 접견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양계 산업을 시찰하였다. 이때 보일공업(주)의 김현석 사장은 미얀마에 양계시범농장(산란계 5,000수 규모) 설치를 농기계국장에 제언하였고 협약서와 제안서를 김현석 사장과 농기계국장간에 장시간 논의한 후에 협약서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 10월 15일에 협약서 서명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협약서 내용은 양계시범농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 부대시설, 통관 등은 미얀마 농업부 농기계국 제공키로 하였고 양계시범농장에 필요한 기자재, 기술, 양계사 건축 등은 보일공업(주)에서 제공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양계시범농장 설치 시작은 2016년 2월중으로 하며 미얀마 축산기계화 사업에 보일공업(주) 우선 참여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과거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원조국가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동남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많은 개도국을 돕는 위치에 있다. 미얀마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은 과거 한국 전쟁 시 우리를 도왔던 우방국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자 미래의 양국의 공동 번영과 협력을 위한 보일공업

보일공업(주) 소개

보일공업(주)은 1992년부터 양계 직립식 케이지 생산을 시작했다. 중국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20년 전이다. 중국에 천진보 일사양설비유한공사를 설립하여 국내의 기술력으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후 높은 기술에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현지에서도 많은 물량이 판매되었고 또한 국내 산란계 농장에도 많은 물량 판매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계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속 성장해왔다. 현재, 보일공업(주)은 중국 공장의 생산능력은 1주일에 3~5만수 규모의 산란계케이지 제작이 가능하며 1주일이면 농장 하나규모의 케이지를 지을 수 있다.

보일공업(주)의 경쟁력은 국내 기술력으로 이뤄낸 '높은 품질'과 수입 기자재 대비 '저렴한 가격' 그리고 '고객만족 서비스'다. 22년째 직립식 케이지를 제작·판매하면서 농가가 원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신기술 연구 개발에 힘써 제품에 대한 내구성과 품질에 대해 명성이 자자하다. 또한, 중국 현지공장 생산으로 저렴한 인력을 통해 수입 기자재 대비 저렴한 소비자가로 농가의 구매와 사용 중 만족이 높은 제품이다. 또 하나의 강점은 고객만족 서비스다. 국내 기술로 제작한 당사 제품은 제품 작동 결함 시 언제든지 부품을 조달, 교체할 수 있도록 비축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농가의 교류를 통해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어 제품 기술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사항시 간단한 부품은 직접 교체하거나 손 볼 수 있도록 농장주에게 제품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해 농장관리에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주)의 값진 투자로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확대는 향후 민간기업인 보일이 미얀마 축산개발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그 기대가 크다. **양계**